

주가조작 주범의혹! 김건희를 신속 수사하라!

주가조작 주범의혹! 김건희를 즉각 소환하라!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소환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

검찰이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요 공범 5명이 모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소위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비싸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제외됐다.

검찰은 “계속 수사중” 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범죄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주가조작 사건은 돈을 낸 사람과 돈을 움직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계좌관리인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해 놓고 돈의 주인, 속칭 ‘쩐주’ 김건희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 ‘윤석열 봐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본인이 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백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이미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장기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나서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늑장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이 전주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는 ‘봐주기 수사’ , 사건 배당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능장수사’ 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선동 사무총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선대위 권력을 틀어쥐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만들 정권이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 앞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불평등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에 의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가조작 주범의혹 김건희 씨를 즉각 소환조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